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무슬림 100만 명 회심...모스크 5만 개 폐쇄**



이란에서 전례 없는 수의 무슬림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찾고 있다고 CBN뉴스가 13일 보도했다. 이란 사람들은 아야톨라(ayatollah, 이슬람 고위 성직자)들과 이슬람 신정주의 정권의 공허한 약속에 실망하고 있다.

익명의 내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80%가 민주 정부를 선호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이슬람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교자의 소리(VOM)의 토드 네틀턴은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마약 중독률을 가진 나라”라며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빈곤선 아래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이슬람이 가져다준 것이 이런 것이라면 더 이상 관심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다른 선택지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네틀턴에 따르면,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신앙의 다른 선택지는 예수님이며, 최소 100만 명의 무슬림이 이슬람을 떠나 기독교를 선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로써 현재 이란의 7만 5,000개 모스크 중 5만 개가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네틀턴은 “이란 정부는 사람들이 이슬람을 떠나 다른 종교로 개종하거나 정부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를 막기 위해 권력을 강화하고 반대 세력을 억누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성경 공부하던 가정 교회가 여러 차례 급습당했다”며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심문받고, 특히 모임의 리더는 체포되어 구금되고 감옥에 수감됐다”고 전했다.

또한 네틀턴은 이슬람을 떠나는 것에 대해 가족과 친구들이 정부보다 더 관대하다면서 “그들은 ‘예수든 무신론이든 무엇이든 맞는 것을 찾았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 없다. 이슬람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을 찾는 걸 보니 기쁘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독교 선교단체 더 타이드 미니스트리(The Tide Ministry)의 돈 쉐크는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실제로 이슬람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대표한다고 생각한다.”며 무슬림들이 꿈과 환상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찾고 하나님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쉐크는 “청취자들로부터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항상 신이 나를 벌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다’는 반응을 듣는다”면서 “이란뿐만 아니라 무슬림 세계 전역에서 각성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겹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사야 61:10-11)

하나님, 기독교 박해 순위 8위를 기록하는 이란에서 당국의 억압 가운데도 100만 명의 무슬림이 복음에 반응하여 기독교로 개종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거짓 종교로 두려움에 종노릇하게 했던 사단의 속임이 깨어지고 우리를 사랑하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이르도록 인도하소서. 주님께 나아온 자들을 말씀으로 굳건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중동의 모든 나라 가운데 구원을 베푸사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공의와 찬송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나이지리아, 납치된 목사와 딸 행방 묘연...몸값 받고도 살해 협박

나이지리아 북서부에서 납치된 목사와 딸이 납치된 가운데 납치범들이 몸값을 받고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이후 이들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모닝스타뉴스가 20일 전했다. 잠파라 주 경찰 사령부의 '모든 성도 개신교회' 목사인 이사 앤드류와 그의 딸 그레이스 이사 앤드류(13)는 지난달 14일 구사우의 자택에서 납치됐다. 친척과 친구들은 몸값으로 600만 나이라(약 500만원)를 지불했지만, 납치범들은 15일까지 오토바이 3대와 함께 600만 나이라를 추가로 받지 않으면 그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소식통은 친척들이 앤드류 목사가 눈이 가려진 채 몸값 지불을 호소하는 동영상을 받았으며 그의 딸이 AK-47 소총을 어깨에 멘 채로 자신이 결혼하여 가해자들과 합류하게 될 것이라는 사인을 보냈다고 말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시편 38:12,21-22)

하나님,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 납치, 살해가 끊이지 않는 나이지리아를 주님의 손에 위탁합니다. 납치된 앤드류 목사님과 딸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주를 의지하게 하소서. 교회에 대해 음모를 꾸미고 괴악한 일을 행하는 납치범들과 배후의 사탄을 주께 고발하오니, 저들의 악한 도모가 끊어지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의 간구에 응답하사 납치된 자들이 속히 풀려나게 하시고, 박해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 또한 믿음의 기도로 승리케 하옵소서.

▲ 멕시코 범죄조직, 청부살인·마약 밀매에 어린이까지 동원

멕시코 북부 미국 접경지대에서 아동을 동원한 마약 밀매·폭력 카르텔이 적발됐다고 연합뉴스가 현지 언론들을 인용해 21일 전했다. 멕시코 소노라주 검찰은 두 차례의 작전을 통해 갱단 조직원 2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소노라 검찰에 따르면 이들 중에는 16세 미만 미성년자 7명이 포함돼 있으며 가장 나이가 어린 구금자는 11세이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이들은 청부살인과 암살 같은 범죄를 비롯해 마약 밀매 등에도 관여했다. 인권단체는 주요 카르텔이 상대적으로 경찰과 검찰의 눈을 쉽게 피할 수 있는 미성년자를 각종 범죄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멕시코 아동권리네트워크는 지난 2020년 기준 조직범죄자들에게 포섭된 미성년자 규모는 4만 명 정도, 갱단에 이용당할 위험에 처한 숫자는 최대 25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미성년자 가족은 '갱단 가입이 사회적·경제적 소외를 벗어날 유일한 기회'로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시편 55:10-11,16)

하나님, 경찰과 검찰의 눈을 쉽게 피하려 미성년자들을 각종 범죄에 끌어들이는 멕시코의 범죄조직을 꾸짖어 주십시오. 악독과 탐심으로 어린 영혼을 짓밟는 어두움의 세력과 사탄을 멸하시고 다음세대를 진리와 사랑으로 보호하소서. 성 중에 죄악이 가득하여 빈곤과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국민들과 압박과 속임수로 갱단을 떠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계시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의 은밀한 것과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날이 임하기 전에 구원의 한길 되시는 주께 부르짖어 은혜의 십자가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 생명을 칼에서 건져 구하소서”
치안 악화로 암살 위협 받는 총리...갱단만 180여 개**



갱단의 폭력으로 치안 악화 상황에 놓인 중미 카리브해 섬나라 자메이카에서 총리에 대한 암살 위협이 포착돼,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호레이스 창 자메이카 안보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총리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 14일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다고 현지 일간 자메이카옵서버와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비상사태가 내려진 곳은 수도 킹스턴에서 서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클래런던 지역이다. 앞서 이곳에서는 일요일인 지난 11일 갱단 간 총격전으로 8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자메이카옵서버는 전했다. 자메이카 경찰은 또 앤드루 홀니스 총리와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주말 총격 사건 후 홀니스 총리가 “이번 테러 행위에 책임 있는 살인범들은 법정에 서거나 (숨진 이후) 그들의 창조주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이후 나왔다.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복면을 쓴 남성이 비속어와 함께 “총리가 대량 살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거나 “다음 주까지 클래런던 주민 모두를 살해하면, 그 사람 다음에는 총리와 그 아내가 (타깃이) 될 것”이라는 등의 협박을 하는 동영상이 유포됐다고 자메이카옵서버는 전했다.

자메이카는 쿠바와 아이티 남부에 있는 섬나라로 면적(1만991km²)은 제주도 6배 크기다. 로이터에 따르면 인구 280만 명의 자메이카에서는 180여 개의 크고 작은 갱단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갱단원과 연관된 각종 폭력에 자메이카 정부는 최근 수년 사이 여러 차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다.

범죄 관련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인사이트크라임’은 지난해 자메이카 10만 명당 살인율이 60.9명으로, 작은 섬나라 세인트키츠네비스(65.0명)에 이어 중남미-카리브해 국가 중 2번째로 높았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122배 수준이다. 각종 공식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는 ‘지표누리’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살인 범죄율은 2022년 기준 0.5명(살인미수·살인음모 등을 포함한 국제기준)이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시편 22:19-20,23)

하나님, 180여 개의 갱단으로 폭력이 난무하며, 최근 주민들을 향한 대량 살상과 총리를 겨냥한 암살 위협에 의한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자메이카 땅을 붙들어 주소서. 생명을 해치면서까지 자신의 원함을 위해 사탄의 종노릇 하는 모든 갱단이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서 자신의 죄를 돌이켜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이때 자메이카 교회에게 더욱 복음을 선포케 하셔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힘을 다하여 주를 의지하게 하셔서, 이 땅 모든 백성이 구원의 주를 찬송케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민주 콩고, 올해 엠폭스 사망자 570명 이상...성적 접촉 통해 급증

변종 엠폭스(MPOX, 옛 명칭 원숭이두창)의 진원지인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올해 들어 엠폭스로 인한 사망자가 57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20일 AFP통신을 인용해 전했다. 로저 캄바 민주콩고 보건장관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570명 이상의 사망자를 포함해 1만 6,700건의 엠폭스 확진 또는 의심 사례가 기록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주 보고된 1만 5,664건의 확진·의심 사례와 548명의 사망자에서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민주콩고의 온라인매체 올라프리카에 따르면, 주로 동성애자 등을 비롯 성적 접촉에 의해 퍼지고 있는 엠폭스는 동부 국경을 따라 빠르게 퍼지고 있다. 특히 엠폭스의 돌연변이 버전은 성인의 경우 약 5%, 어린이의 경우 10%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18일, 2022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엠폭스 감염자의 절대다수가 남성 동성애자끼리 성관계를 통해 엠폭스가 확산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로마서 13:13-14)

하나님, 감염자의 절대다수가 남성 동성애자끼리 성접촉으로 확산되는 엠폭스가 점점 확산되어 사망자와 확진자 등이 계속 증가한다는 민주콩고 소식에 애통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하는 사탄의 간계를 꾸짖어 주시고, 음란과 호색으로 영과 육을 해하는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여 주십시오. 진리로 교훈하시는 주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가 죄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주의 거룩한 신부로 새롭게 하옵소서.

▲ 전 세계 베네수엘라 국민들, 마두로 패배 주장하며 시위 벌여

전 세계에 있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지난 17일, 자국의 야당의 요청에 의해 거리로 나와 지난달 당선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패배를 주장하고 에드문도 곤살레스의 승리를 지지했다고 뉴스맥스가 18일 전했다. 이들은 도쿄, 시드니, 멕시코시티 및 여러 다른 도시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주요 야당 연합이 주장하는 이번 선거의 결과는 곤살레스가 더 많은 표를 얻은 것이라는 선거의 진정한 결과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또한 각국 정부에 에드문도 곤살레스 후보를 지지하고, 마두로와 그의 동맹들에 의해 벌어지는 잔혹한 탄압 캠페인 때문에 고국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두려워하는 베네수엘라인들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멕시코시티의 혁명 기념비 앞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유! 자유!”라는 구호를 외쳤고 “마두로 물러가라! 마두로 물러가라!”라는 외침에 지나가던 운전자들은 경적을 울리며 이에 호응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흑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아모스 5:14-15)

하나님, 사회주의 국가로 오랜 시간 마두로의 독재정권 아래 고통받아온 국민들의 자유를 향한 외침에 귀 기울이사 베네수엘라에 정의를 세워주옵소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국민을 억압하며 불법을 행하는 마두로 정권을 책망하여 주시고 사탄의 권세를 파하소서. 독재자의 압제보다 죄로 인한 영혼의 고통이 더 중함을 깨닫게 하사 모든 영혼이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십자가 복음으로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고 주의 공의가 행해지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보트 폭발 사고 후 부두교 신자들 그리스도께 돌아와**



최근 아이티 북부 해안에서 보트 폭발 사고가 발생해 수십 명의 아이티인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 가운데 일부는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고 미션네트워크가 13일 보도했다.

기독교 구호단체 ‘아이티를 사랑으로’(For Haiti With Love)의 로즐린 드하르트(Roseline DeHart)는 “보트에 80여 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인원은 알 수 없으며 그중 30명만 살아남았다”고 전했다.

부두교 의식에서 사용된 알코올과 불이 보트 폭발로 이어졌고 생존자들은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그들은 해변에 도착하자마자 ‘아이티를 사랑으로’ 화상 클리닉(For Haiti’s burn clinic)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지금도 치료는 계속되고 있다.

드하르트는 “화상은 치유가 더디고 많은 붕대와 치료 물품들이 필요하다”며 “사고가 나기 전에 물품을 미리 보내두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고 설명했다. 클리닉 직원들은 치료하면서 모든 생존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는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주님께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했다”며 “그러자 사고에서 살아남은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환자들은 완치될 때까지 이틀에 한 번씩 이곳에 와서 치료를 받는 동안 복음을 듣고 있다.

드하르트는 화상 환자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했다. 또 ‘아이티를 사랑으로’가 아이티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금도 물속에서 시신이 계속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했다.

아이티 부두교(Vodou)는 아프리카 서부의 여러 부족들이 식민지 시절 노예로 아이티에 강제 이주 되면서 가져온 전통 신앙, 원주민의 종교 및 가톨릭교와 결합해 형성된 종교이다. 부두교는 다양한 신들과 조상 숭배, 영혼 숭배가 특징이며 주로 로아(Loa)라 불리는 영혼을 기리거나 소환하기 위해 행해진다(출처: 복음기도신문, 기도24·365본부 종합).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요한1서 4:10,19)

하나님, 헛된 신을 따르다가 사고로 많은 이가 목숨을 잃은 아이티의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주의 선하심을 나타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두교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과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육체와 영혼의 참된 치유를 얻게 하소서. 섬기는 이들에게 주의 마음을 더욱 부으사 이땅에 생명을 심는 십자가 사랑의 증인으로 서게 하셔서 고통과 황폐함이 가득한 이곳에 회복의 역사를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중러 등 정부 주도 가짜 뉴스, 종교 자유 침해”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정부 주도의 허위 정보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종교 자유 침해와 박해를 초래한다”고 밝혔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14일 전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8월 팩트시트에서 중국이 신장 지역에서 대량 학살을 은폐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조작된 대중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긍정적인 뉴스 기사를 배포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당시, 우크라이나와 비전통적 종교 집단에 대한 ‘탈사탄화(Desatanization)’로 묘사했고, 복음주의 개신교 교회들을 악마의 교회와 동일시했다고 밝혔다. 이란에서는 이슬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시온주의자(Zionist)’ 세력의 일원이라는 허위 정보를 정부와 연계된 미디어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죽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니(하박국 2:4-5)

하나님, 정부의 주도로 온라인을 이용해 거짓 정보를 확산시켜 죄악을 은폐하며,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나라들의 교만하고 불의한 마음을 꾸짖어 주십시오.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만족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사 공의와 생명이 깃뻛힌 곳에 주의 정의와 진리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박해의 현장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증인들로 인해 더욱 복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복된 소식이 전파되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콜롬비아 성서공회, 와유나이키어로 성경 번역

콜롬비아 성서공회가 최초로 와유나이키어(와유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공개했다고 이반젤리컬포커스가 14일 전했다. 성서공회는 이번 번역 작업이 약 13년이 걸렸고, 약 45억 페소(1,012유로)의 비용이 들었으며 국내외로부터 기부를 받았다고 밝혔다. 콜롬비아 성서공회는 “성서 번역은 단순한 단어의 필사 그 이상이며, 성경 본문의 본질을 엄격하게 보존하면서 공동체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콜롬비아 성서공회는 와유나이키어로 된 성경 1,600부를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며, 올해 최소 1만 부를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니이다(시편 119:104-105)

하나님, 오랜 시간 수고와 인내로 성경을 번역하고 성도들의 기도와 연보를 통해 와유나이키어로 된 성경이 완성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께서 선교완성의 끝날까지 열방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대연합의 행진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언어를 사용하는 와유족들이 하나님의 본심이 담긴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랑과 섭리를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 발에 등이요, 길에 빛이 되시는 주의 말씀만을 따르며 의를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